광주·전남 공기업 내년 2천명 채용…한전, 240명은 고졸로

한전 1000명·전남대 병원 444명·한전KPS 399명 등

전체 1만6700명 채용…올보다 2.9% 늘고 고졸 10% 줄어

내년 광주·전남지역 공기업에서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효과로 사상 최대인 2000명이 넘는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302개 공공기관 전체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1만7187명으로, 올해 채용 규모인 1만6701명보다 2.9% 증가한다. 공공기관 신입 채용 규모는 2011년 9538명에서 2012년 1만4452명, 2013년 1만5372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2032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지역내 공기업 중 채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무려 1000명을 채용한다. 이어 전남대학교 병원 444명, 한전KPS(주) 399명, 한국농어촌 공사 189명 등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채용인원 중 240명을 고졸자로 뽑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부 공기업에서 채용을 검토하고 있어 신규 채용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내년에 500명 이상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관은 한수원(1276명), 경상대학교 병원(935명), 부산대학교 병원(928명), 서울대학교 병원(7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639명), 강원랜드(518명) 등이다. 한국철도공사(405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97명), 코레일네트웍스(264명), 대한적십자사(261명), 근로복지공단(25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250명) 등은 내년 채용규모가 200명을 넘는다.

■ 광주·전남 공공기관 채용계획 (단위:명)

유형별	기관명	15년채용계획(A)	14년 채용계획(B)	증감 (A-B)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1000	734	266
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189	230	-41
기타공공기관	전남대학교병원	444	380	64
	한전KPS(주)	399	555	-156

〈자료 : 기획재정부〉

내년 채용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는 기관은 경상대 병원(207명→935명), 한국수력원자력(824명→1천276명), 한전(734명→1000명), 부산대 병원(702명→928명) 등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846명→405명), 서울대 병원(1천121명→792명), 국민연금공단(468명→190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83명→297명) 등은 내년 채용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규모는 134개 기관 1722명으로 전체 신입직원 채용 규모 1만7187명의 10% 가량이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규모인 1933명보다 10.9%(211명) 줄어든 수치다. 올해 고졸자 채용 규모도 지난해 2112명보다 8.5%(179명) 가량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가 고졸 구직자에게 고학력자와 차별 없는 '열린 고용'을 약속하며 고졸 채용을 독려하면서 2010년 470명, 2011년 684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고졸 신입사원은 2012년 2042명, 2013년 2122명으로 대폭 늘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비중을 차차 늘려 2016년까지 40%를 채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내년 고졸자 채용 규모를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62명), 강원랜드(159명), 한국철도공사(80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형태별로 보면 30개 공기업에서 777명, 87개 준정부기관에서 432명, 185개 기타공공기관에서 512명을 각각 채용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홈페이지에 전국 최초 소설 연재

정찬주 작가 '이순신의 7년' 집필…내년 1월5일부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7년을 호남민중의 역할과 함께 재조명하는 대하역사소설 '이순신의 7년'이 전남도 홈페이지에 연재된다.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소설이 실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28일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후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기까지 7년의 삶을 그린 대하소설 '이순신의 7년'을 새해 초부터 도 홈페이지에 연재한다"고 밝혔다.

이 연재소설은 성철스님, 법정스님, 다산 정약용 등 고승과 역사적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소설로 다루어 큰 명성을 얻은 정찬주(61) 작가가 집필한다. 새해 1월5일부터 1년간 52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에 독자들과 만난다.

이 소설은 이순신 장군이 1591년부터 전라좌수사로 23번의 크고 작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과정, 백의종군 후에는 궤멸된 조선수군을 재건한 일 등을 재조명한다.

그 과정에서 특히 충무공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호남의 장수와 의병, 승군과 관군, 이름 없는 민중의 역할을 복원함으로써 임진왜란 해석의 새 지평을 연다.

보성 출신으로 서울에서 작품활동을 하다 2001년 화순에 정착한 정찬주 작가는 "이순신은 호남이 없다면 국가는 없다고 단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민중의 역할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있지 않으며, 호남 민초들의 절절한 사연도 역사 뒤편에 묻혀진 느낌이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호남인에게 헌정하는 소설로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설을 보려면 전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에 접속해 생명의 땅 전남, 도정홍보관, e-book 자료실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전남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네이버 배너광고(뉴스홈)를 1월5일부터 2월4일까지 한 달 동안 설치해 전남도 홈페이지 e-book 자료실에 연결되도록 했다.

노래영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연재를 통해 각 시·군도 지역의 역사자원을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임진왜란 기간 호남 민중의 역할을 재조명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호남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동시에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오는 31일 밤 '민주의 종 제야 타종식'이 열릴 예정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이 28일 오후 고풍스런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모집 광주·전남 출신 각각 212명

재단법인 남도장학회가 '남도학숙'의 2015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신규 모집 인원은 424명(남 220명 여 204명)으로 광주·전남 각각 212명이다. 이는 입사정원 850명(광주 425명 전남 425명) 중 현재 입사생을 대상으로 재입사생 426명을 우선 선발하고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규 선발하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및 대학원생(석사과정)으로 공고일인 29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남도에 있어야 한다.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이 평균 6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재학생 및 대학원생은 전체 학년 평점 평균 B학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광주시, 전남도, 남도학숙 누리집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2015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광주시청 민원실이나 전남도 및 전남지역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도 대학 지원 수험표로 지원할 수 있다.

입사 대상자는 학교 성적(60점)과 생활정도(40점)를 평가해 2월6일 광주시, 전남도, 남도학숙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남도학숙은 지난 1994년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지역 인재 양성의 염원을 모은 시·도민의 성금을 기반으로 세워져 지금까지 9000여 명의 광주·전남 학생들이 이용했다. 사용료는 월 15만원이다.

/윤현석기자chadol@

문화전당앞서 7년만에 '제야의 종소리' 듣는다

광주시, 31일 밤 11시20분부터 타종 행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로 중단됐던 광주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오는 31일 밤 11시 20분부터 시작된다.

광주시는 28일 "2015년 새해를 맞아 '민주의 종' 제야 타종식을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31일 밤 11시20분부터 새해 1일 오전 0시20분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장, 시교육감, 양띠 시민 등 기관장과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등이 33차례 타종한다. 타종 행사는 2007년 전당 건립공사로 중단된 이후 7년만 이다.

시민 성금 등 14억6000여만원을 들여 만들어진 민주의 종은 2005년 10월 옛 전남경찰청 차고에 마련된 종각에 설치됐으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때문에 2008년 종각이 해체돼 환경관리공단에 임시 보관해 왔다. 이후 민주의 종은 깨진 상태로 납품된 사실과 정상적인 무게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제작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박남언 광주시 안전행정국장은 "새해는 KTX 개통,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으로 광주가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 역량을 결집하고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타종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